

현안과 과제

■ 폭염과 추석 물가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폭염과 추석 물가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2
3. 시사점	6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폭염과 추석 물가

■ 개 요

올해와 같은 유래 없는 폭염 현상은 이상 기후에 약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990~2015년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 상위 5개년도('90,'94,'96,'04,'13년)를 '폭염장기화 연도'로 구분하고, 이외 연도와 물가를 비교해 폭염발생 시의 물가 특징을 파악하였다.

■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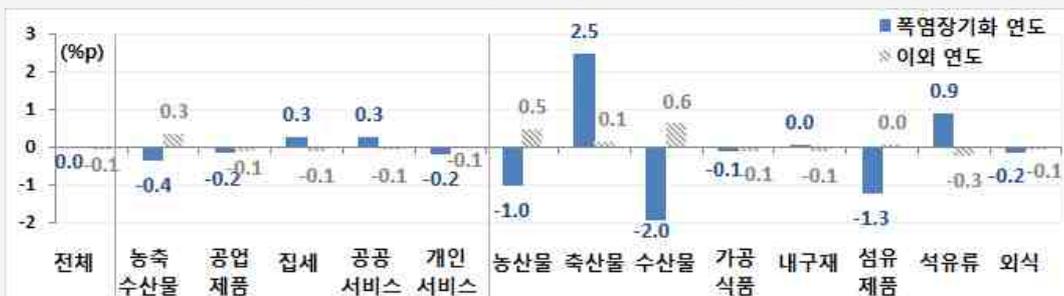
(여름철 물가) 폭염장기화 연도의 7~8월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0.6%p 높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3.8%p 높았다. 이에 폭염이 여름철 식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석 물가) 전반적으로 폭염 여부와 가을철 물가는 큰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물 물가는 폭염장기화 연도에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 가계의 축산물 구매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품목별 7~8월 평균 물가 상승률 - 품목별 연평균 물가 상승률 >



< 품목별 추석 평균 물가 상승률 - 품목별 연평균 물가 상승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이용).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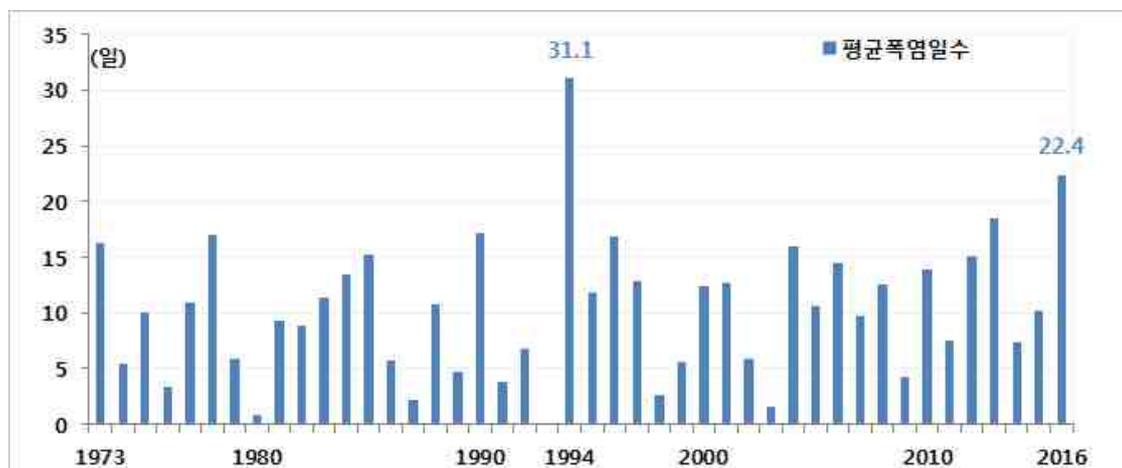
폭염 현상으로 첫째, 여름철 식품 물가가 불안해지고, 특히 추석에 축산물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농축수산물의 수급 예측 기능 강화, 농업재해 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확대로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올해 폭염 현상과 같이 기상 이변의 강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 예측 능력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1. 개요

○ (연구 배경) 최근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염 현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

-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를 의미
 -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를 '폭염'으로 정의
 - 또한 폭염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됨
- 2016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현재 22.4일로 역대 최고 무더위로 기록된 1994년의 31.1일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8월 28일 현재 22.4일로 기록되고 있음
 - 기상청이 1973년부터 집계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 자료를 볼 때, 역대 최고 무더위로 기록된 1994년의 31.1일에 이어 2016년이 2위로 기록될 전망
- 유례없는 폭염 현상은 이상 기후에 약한 농축수산물에 중심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 1990년~2015년 중 전국 평균 폭염 일수 상위 5개 년도를 '폭염장기화 연도'로 분류하고, 이외 연도와의 물가 비교를 통해 폭염 연도의 물가 특징을 파악

< 전국 평균 폭염 일수 >



자료 : 기상청.

주 : 2016년은 8월 28일 기준.

2.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폭염이 있던 해의 여름철 물가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높았음

- 폭염 장기화 연도의 7~8월 여름철 평균 물가상승률은 5.6%로 이외 연도의 평균인 3.5%보다 높았음

- 1990년 이후 폭염 발생 상위 5개 연도¹⁾인 '폭염장기화 연도'와 이외 연도 간의 7~8월 물가 수준을 비교해 봄
- 그 결과, 폭염장기화 연도의 7~8월 여름철 평균 물가상승률은 5.6%로 이외 연도의 평균인 3.5%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폭염장기화 연도의 7~8월 여름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6%p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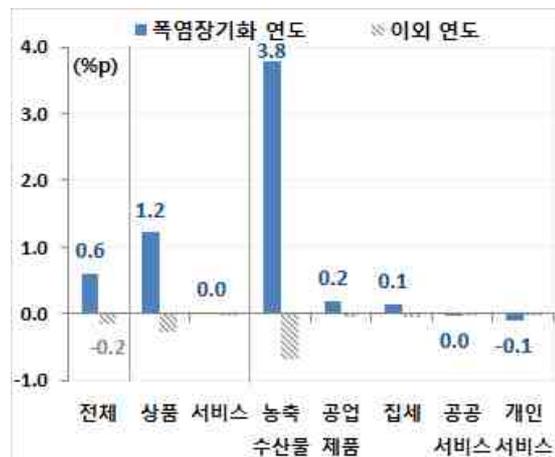
- 물가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평균 15.2%, 1980년대 8.4%, 1990년대 5.7%, 2000년대 3.1%, 2010년대 1.9%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그런데 폭염장기화 연도(90년, 94년, 96년, 04년, 13년)를 보면 고물가 시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각 연도별 7~8월 평균 물가상승률과 해당연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
- 이외 연도의 7~8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2%p 낮았으나, 폭염장기화 연도에는 오히려 0.6%p 높았음

< 품목별 7~8월 평균 물가 상승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이용).

< 품목별 7~8월 평균 물가 상승률 - 품목별 연평균 물가 상승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이용).

1) 폭염 발생 상위 5개 연도는 1990년, 1994년, 1996년, 2004년, 2013년을 기준.

○ 폭염장기화 연도에 여름철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항목은 식료품, 교통, 숙박 부문이며, 의류 및 신발 물가는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

- 폭염장기화 연도의 7~8월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항목은 식료품, 교통, 숙박 부문

- 소비자물가 세부 항목별 7~8월 평균 물가상승률과 항목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통해 상대적인 물가상승률을 추정해보았을 때,
- 식료품·비주류음료는 폭염장기화 연도에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2.6%p 높은 여름철 물가를 기록
- 교통 및 숙박 부문도 폭염장기화 연도에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각각 약 0.9%p, 0.5%p 높은 여름철 물가를 기록
- 식료품·비주류음료 항목은 폭염장기화 연도에는 평균 9.0%, 이외 연도에는 평균 4.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 폭염장기화 연도의 7~8월 물가가 오히려 하락한 항목은 의류·신발 부문

- 의류 및 신발은 폭염장기화 연도에는 평균 2.7%, 이외 연도에는 평균 3.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 의류 및 신발 물가는 폭염장기화 연도에 연평균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약 -0.7%p 낮았음

< 품목별 7~8월 평균 물가 상승률 - 품목별 연평균 물가 상승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이용).

주 : 주류 및 담배 물가는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 폭염이 있던 해의 가을철 물가는 폭염 여부와 큰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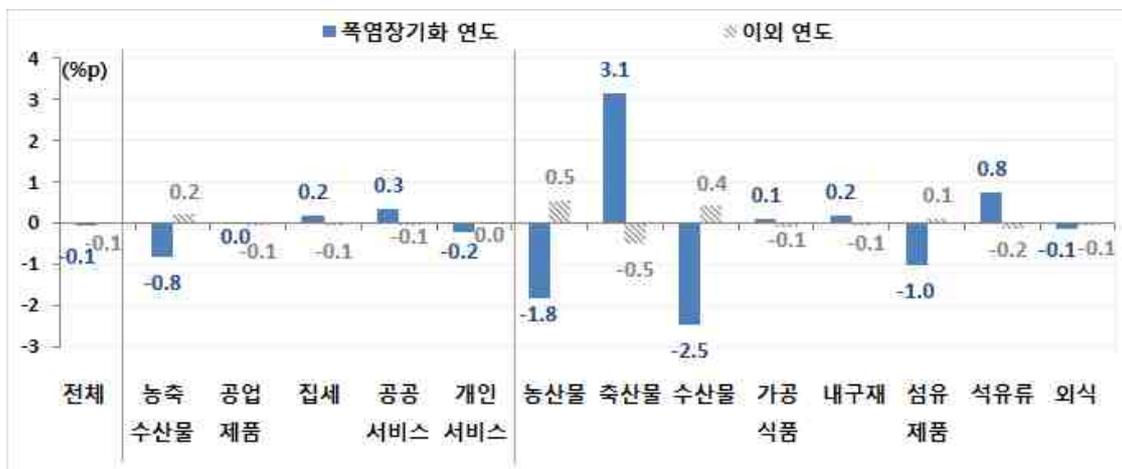
- 폭염장기화 연도의 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1%p 낮았음

- 폭염장기화 연도의 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4.9%로 이외 연도의 평균인 3.6%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한 상대적인 물가수준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폭염장기화 연도의 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1%p 낮았음

- 대부분의 품목들은 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폭염 여부와 큰 연관성이 없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오히려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0.8%p 하락

- 폭염 장기화 여부에 따른 품목별 물가상승률 격차가 대부분 ±0.2%p 내외로 분석되어 폭염이 가을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농축수산물의 경우 폭염장기화 연도의 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0.8%p 낮았던 것으로 분석
- 동기간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농산물과 수산물의 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각각 -1.8%p와 -2.5%p 낮았음
- 즉, 폭염장기화 연도에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여름철에 급등하지만, 가을철에는 빠르게 하향 안정화하는 것으로 판단됨

< 품목별 9~10월 평균 물가 상승률 - 품목별 연평균 물가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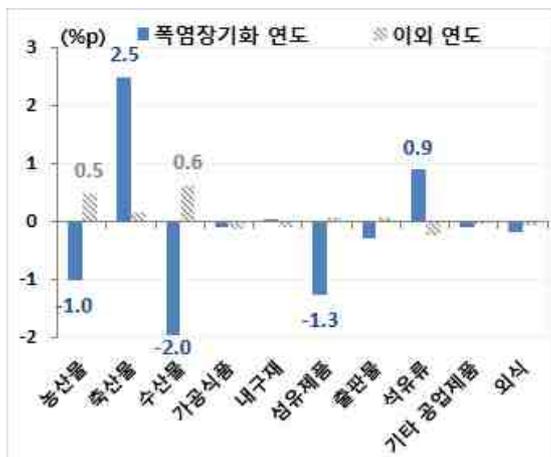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이용).

○ 그러나, 추석 차례상 구입 비용의 1β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물 물가는 폭염장기화 연도에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추석에 축산물 구매 부담이 증가할 전망

- 폭염장기화 연도의 추석 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항목은 축산물
 - 폭염장기화 연도의 추석²⁾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4%p 낮았으며, 그 중 농산물 -1.0%p, 수산물 -2.0%p이었음
 - 그러나 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2.5%p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폭염에 따른 축산물 폐사, 출하 체중 감소 등 품질 하락, 공급 감소,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축산물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

- 추석 차례상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물의 물가 상승은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6년 8월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에 따르면 총 28개 품목 중 축산물 구입 비용이 대형유통업체 기준 약 11만 5천원, 전통시장 기준 약 8만 5천원으로 예상
 - 전체 추석 차례상 구입 비용 중에서 축산물의 비중은 대형유통업체 기준 약 36.4%, 전통시장 기준 약 38.3%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품목별 추석 물가 상승률
- 품목별 연평균 물가상승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이용).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 및 지출비중>

(단위: 원, %)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가격	비중	가격	비중
농산물	50,607	22.6	90,981	28.7
축산물	85,534	38.3	115,458	36.4
수산물	20,310	9.1	28,997	9.2
과일류	43,729	19.6	51,229	16.2
기타	23,334	10.4	30,148	9.5
합계	223,514	100.0	316,813	100.0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³⁾.
주 : 2016년 8월 24일 기준.

2) 9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10월에 추석이 있던 해의 경우 10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함.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추석 차례상 구입 비용 조사 결과'(16.08.24) 참조.

3. 시사점

- 폭염 현상이 농산물, 축산물 등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대응 마련이 필요

첫째, 폭염으로 식품 물가가 불안해지고, 특히 추석에 축산물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보급으로 물량 비축 역량을 확충하여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가 야기할 수 있는 가격 상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특히 추석을 앞두고 폭염으로 축산물 물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축산물의 도축 물량 및 비축물 공급 확대, 직거래 장터·특판장 운영을 통한 할인 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출 필요
-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관리하고, 가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둘째, 농축수산물의 수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보험의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이상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수급 분석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
- 농업·축산·수산 재해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장 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자연재해 리스크를 최소화
- 나아가, 기상재해에 강한 농축수산물을 개발하고, 해외 공급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급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셋째, 올해 폭염 현상과 같이 최근 기상 이변의 강도가 확대되고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 예측 능력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폭염 뿐만 아니라 태풍, 가뭄, 폭설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 기후와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 연계·협력 강화 등이 필요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